

통일 칼럼

대북 방공망 문제

요격 미사일인 페트리엇과 사드는 주한미군이 국내에 배치한 핵심 방공 자산이다. 그런데 중동 사태가 이어지면서 일부가 중동으로 향한 것으로 보인다.

안보 공백 우려에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재래식 군사력은 북한을 압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이 드론과 다종의 미사일을 섞어서 한꺼번에 날려 보내는 전략을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주한미군 전력 차출이 잦아질 경우 대북 방어 태세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지난 3일 밤, 경북 성주군 소성리 마을에 설치된 CCTV 영상에는 어두컴컴한 시골길로 대형 차량들이 연이어 빠져나갔다.

이 가운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 발사대로 식별된 건 총 6대다. 성주 사드 기지에는 발사대 6대로 구성된 사드 1개 포대가 배치돼 있었는데, 발사대 전체가 기지에서 반출된 건 매우 이례적이다.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 사태가 이어지면서 주한미군의 방공 자산인 사드가 현지로 반출된 것으로



정복규
논설위원

보인다.

주한미군의 오산 공군기지에서선 또 다른 전력 차출 움직임도 포착됐다. 국내 다른 미군기지에 있던 요격미사일, 페트리엇 포대 일부가 오산기지로 집결하고, C-5와 C-17 등 미군의 대형 수송기들도 이달 초부터 이곳에서 잇따라 목격됐다.

지난 2일에는 C-5 수송기가 오산에서 인도양으로 이동한 사실이 항공기 동선 추적 사이트를 통해 확인되기도 했다.

실제, 반출된 주한미군 방공 자산 가운데 낮은 고도 방어를 담당하는 페트리엇은 우리 페트리엇과 천공-II로 보완이 가능하지만, 고고도 방어 체계 사드는 대체 가능한 우리 자산

이 현재로서는 없다.

더욱이 북한이 드론과 미사일 등을 대량으로 동시에 발사하는 포화 공격 전략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방공 전력의 일부 공백은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이번 중동 사태에서 이란은 자폭 드론과 저공 비행해 포적을 타격하는 순항미사일, 또 속도가 빠른 탄도미사일을 동시다발적으로 날려 보내는, 이른바 '섞어쓰기'로 미국과 주변국의 방공망을 흔들고 있다.

이 같은 이란의 공격으로 쿠웨이트의 미군 기지에선 미군 6명이 숨지기도 했다. 이란과 수십 년간 군사 협력을 지속해 온 북한은 지난 2022년 다종의 미사일 20여 발과 100여 발의 방사포를 무더기로 섞어 쏘는 시험을 단행했다.

이 중 일부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울릉도 인근까지 날아오기도 했다. 미국이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주한미군의 전력 차출은 빈도가 더 잦아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화형' 앞둔 트럼프 · 푸틴 조형물



지난 19일(현지 시간)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열린 연례 불꽃축제 '리스 피아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풍자한 '니노트(Ninots)' 조형물이 화형을 앞두고 전시돼 있다.

레바논 피난민들에게 선물 나눠주는 자원봉사자



지난 19일(현지 시간)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한 자선단체 자원봉사자가 리마단을 종료하는 이드 알피트르를 하루 앞두고 레바논 남부 피난민들에게 장난감 공과 선물을 나눠주고 있다.

사설

'빛의 혁명 완수하라' ... 전북여성대회

제25회 전북여성대회가 3월 5일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열렸다. 전북여성단체연합 등 지역 6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북여성대회 조직위원회가 주최했다.

이번 대회는 '빛의 혁명을 완수하라!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여성주권자들의 결집된 힘을 보여주었다.

조직위는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성별 불균형 해소와 성평등 현안들을 지역사회의 핵심 의제로 공론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민주주의 위기 상황에서 확인된 여성들의 연대 동력을 성평등 사회 실현으로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이날 행사는 크게 캠페인 부스 운영, 기념식, 거리행진으로 구성됐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전북여성노동자회, 성폭력예방치료센터 등 각 단체가 참여해 장미

꽃 증정 및 이슈 캠페인을 진행한 다.

오후 3시에 시작되는 기념식에서는 성평등을 향한 의지를 담은 '3시스템(STOP)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3·8 여성선언문 낭독', 노래 공연 등이 진행됐다.

시상식에서는 지역 문화예술계 성평등에 기여한 전북문화예술계평등네트워크가 디딤돌상을, 성폭력 피해자에게 면죄부를 준 전북기자협회가 성평등 걸림돌로 발표됐다.

기념식 종료 후인 오후 4시부터는 풍남문광장을 출발해 오거리 문화광장을 거쳐 다시 풍남문광장으로 돌아오는 대규모 거리행진이 전개됐다.

3·8 세계 여성의 날은 1908년 3월 8일 미국의 여성 노동자 1만 5,000명이 생존권과 참정권을 요구하며 대대적인 시위를 벌인 것으로 유래했다.

제25회 비현전

제25회 비현전이 3월 3일부터 3월 8일까지 전주시 완산구 경기전길 교동 미술관1관에서 열렸다. 이번 회원전에 참여한 회원은 모두 24명이다. 참여작가 이름과 작품 이름은 다음과 같다. (가나다 순)

강현비 <사랑>, 고지영 <로단떼>, 권안 <등돌길>, 김경희 <우후의 정적>, 김수아 <면 훑날 우리>, 김수정 <부안 공항에서 어반스케치>, 김정순 <8월에>, 김하영 <은빛 꿈을 품은 숲>, 박선 <STORY>, 박영희 <눈이 그치면>, 박지영 <그리고 겨울>, 소기용 <지난 여름에>, 소성희 <겨울시>, 소재남 <겨울 흔적>, 신승주 <Happiness>, 신현화 <그곳엔 가네>, 안은순 <봄빛 속에 피어나>, 이관애 <dreaming>, 이영란 <엄마생각>, 이영주 <한옥마을 노을>, 조선주 <향연>, 최성숙 <여물기까지>, 허미나 <고향집>, 홍경숙 <가을에 스며들다> 등이다.

한편 <비현(丕顯)>이라는 이름은 일찍이 조선 역대 세자들이 학문과 마음의 덕을 닦았다는 경복궁 <비현각(丕顯閣)>에서 그 이름을 빌렸다. 비현(丕顯)의 뜻은 '크게 밝거나 크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또는 그런 묘양을 뜻하는 한자어로 크게 나타날 날을 가리는 회원들의 마음을 그 이름 속에 담았다. 비현회는 지난 2011년 8월 결성 및 창단을 했다.

2002년 이듬해 9월 전북예술회관에서 창립 초대전을 열었다. 그 뒤 2026년 올해까지 대부분 정기전을 전북예술회관에서 개최했다. 드물게 교동 미술관에서 열기도 했다.

사내 · 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송주빌딩 4층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